

# 명도암 김진용



조선시대 제주 교육을 대표하는 인물인 명도암 김진용. 그는 나라에서 내리는 벼슬을 마다하고 후학을 양성하는데 평생을 바쳤다. 명도암 김진용이 머물렀던 마을의 이름에서 그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다.



- 명림로** | 제주시 봉개동 1439-1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25(약 7.4km)
- 명도암동길** | 제주시 봉개동 418-1 ~ 제주시 봉개동 506(약 2km)
- 명도암서길** | 제주시 봉개동 347-1 ~ 제주시 봉개동 2246(약 2.7km)
- 칠오름길** | 제주시 회천동 1783-5 ~ 제주시 봉개동 491(약 1.2km)
- 노루손이길** | 제주시 봉개동 234-200 ~ 제주시 봉개동 234-138(약 0.9km)
- 송이길** | 제주시 회천동 424-3 ~ 제주시 봉개동 294-22(약 2.3km)

## 명림로 / 명도암동길 / 명도암서길 | 명도암

명림로는 봉개에서 명도암마을을 지나 비자림까지 연결되는 도로라는 의미로 부여된 이름이다.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명도암(明道岩)마을의 서쪽에는 안세미오름이 있는데 과거에는 명도암오름으로도 불렸다. 오름 중턱에는 조리세미 또는 명도암물이라고 부르던 맑은 샘이 있어 이 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을의 이름이 명도암으로 되었다고 전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에 조선시대의 유학자인 명도암 김진용 선생이 이 마을에 살면서 마을 이름을 명도암으로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명도암마을의 동쪽과 서쪽에 나 있는 **명도암동길**과 **명도암서길**은 김진용 선생의 호인 명도암에서 따온 이름이다. 명도암 김진용 선생은 광해군의 실정을 비판하다 제주에 유배를 왔던 간옹 이익의 제자였다. 과거에 급제한 후 제주에 내려와 명도암에 머무르면서 후학을 양성하는데 힘썼다.



명도암 김진용선생유허비

또한 1659년 제주목사에게 건의해서 지금의 오현단 자리에 장수당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곳에서 제주의 유생들을 가르치며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기여했다. 훗날 장수당은 굴림서원으로 발전해서 제주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안세미오름 북쪽에는 김진용선생유허비가 세워져 제주 교육에 힘썼던 그를 기리고 있다.

## 칠오름길 / 노루손이길 / 송이길 | 마을의 오름들

명림로 동쪽으로 나 있는 **칠오름길**은 인근에 있는 칠오름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오름에 칩이 많아 칩오름이라고 부르던 것이 변해서 칠오름이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유래로는 주변의 오름 가운데 일곱 번째 오름이어서 칠오름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명도암 관광휴양목장에서 명림로와 갈라지는 **노루손이길**은 노루손이오름에 이르는 길이라 하여 부여된 이름이다. 예로부터 노루손이오름 또는 노리손이오름 이라고 불렀는데,



안세미오름 정상에서 본 명도암마을

‘노로’와 ‘노리’는 노루를 부르던 옛말이다. 오름의 이름처럼 이 지역에 노루가 많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두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솟아 있고, 큰 봉우리를 큰노로손이오름, 작은 봉우리를 작은노로손이오름이라고 부른다.

노루손이길 동쪽에는 번영로에서 갈라지는 송이길이 있다. 송이길은 이 지역에 전해오는 지명을 반영한 이름이다. 제주에서 송이는 화산활동으로 생긴 붉은 빛의 가벼운 돌들을 말한다. 이 돌들은 제주의 오름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독특한 돌이다. 송이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 피부의 노폐물들을 흡수하는데 뛰어나 최근 화장품의 원료로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명림로를 따라 마을 주변에 펼쳐진 오름들. 제주에는 이처럼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오름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유학자 김진용의 흔적이 남아있는 명도암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오름들은 제주의 중산간과 제주 시내를 아우를 수 있는 멋진 전망대가 되고 있다.

